



묵어 육감의 위기



김정자 언론인

금지되고 있지만 'subliminal AD'라는 것이 있다. 몇 초마다 3천분의 1초의 순간적 광고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잠재의식 속에 광고의 이미지를 새겨 넣는다. 순간의 영상에도 이처럼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의도된 영상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TV, 비디오,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의도된 영상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올바른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소리와 냄새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감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동료, 영적세계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소리와 냄새에서 찾기도 한다.

과학이 밝힌 것을 보면 동물의 기억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냄새라 한다. 그래서인지 불가(佛家)의 깊은 감성마저 느끼게 하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주인공은 우연히 맡게 되는 특정한 향기로 잠재의식 속 유년기 기억 전체를 떠올린다. 누구나 한번쯤 체험하게 되는 이런 경험은 시공을 헤아릴 경지가 아니다.

자비의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耳根圓通), 소리로서 원통의 경지에 이르고 세상의 소리를 살펴 가련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렇다고 냄새와 소리에 안심할 것도 아니다. 의도된 영상처럼 의도된 소리와 냄새가 있고, 영상처럼처럼 향기와 소리처럼 있는 것도 있어 성업 중이다.

육근 육식 육감의 위기라고 할까. 고요한 선정의 경지를 보여주시는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날처럼 필요한 때도 없어 보인다.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최고조에 이른 당시에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23일 북·미·중 3자회담이 열리면서 이러한 우려가 약화되고 있지만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핵문제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談判하던 기차가 잠시 정차해 있을 뿐 궤도 수정이 완전히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핵 문제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개발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지난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북한 역시 명징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미국의 강경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왔다. 하지만 조잡한 핵 폭발장치의 제조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도달해 있지만 기술수준이 초보단계에 불과해 무기화하는 데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북핵, 3자 회담 이후가 중요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해결 방식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은 선 영구적 핵 폐기, 후 협상을 북한은 선 체제보장, 후 협상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핵문제 해결과 체제보장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북미 상호 간 불신과 불만의 골이 치우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선언 및 국제적 검증과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확약 및 국제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북·미간 직접 협상을, 미국은 다자간 협상을 주장해 왔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여론이 한국이 배제된 3자회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전쟁의 공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던 최근 우리사회의 우려에 비하면 3자회담의 개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3자회담이 한국을 포함한 4자회담(3+한국)으로, 나아가 국제적 보장체제를 위한 6자회담(4+일본·러시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대체하는 포괄협상 및 새로운 합의틀의 모색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북미를 포함한 관련국은 사문화된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틀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핵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미국의 대북체제 안전보장 방안,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대북 경제 지원,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합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 핵문제는 다행스럽게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있다. 그러나 행보는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치지 않는다. 미국 내 대북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역시 여차하면 튀어나갈 기세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쟁점들을 해결하는 총실한 조정자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만이 한반도 구성원들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참여불교' 세미나

민족문화정책연구소(이사장 여익구)가 22일 '참여불교와 참여정부'란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다뤄진 주제는 '불교의 정치와 사회 참여' 이란 논의의 초점인 '불교적 가치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 토

론자 대부분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전문대 윤세원 교수가 '연기론적 가치의 정치적 변용과 불교인의 정치참여'를,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한국불교의 사회참여, 왜 그리고 어떻게?'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편집자>



◇22일 민족문화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참여불교...' 세미나.

불교, 정치적·사회적 변용 '가능하다'

■교리훼손, 논리 비약없이 외연 넓혀야

정치와 종교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만난다. 종교 조직은 국가가 자체 목적 달성을 위해 제시하는 규범이나 통제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국가는 위정자들의 세계관에 의해 해석된다. 하지만 정교분리의 원칙은 명분과는 달리 애초부터 정치와 종교적 사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불교적 가치의 유지와 실현을 위해 불교에 배분되어야 할 정당한 몫의 확보차원에서도 불교인의 정치참여는 불가피하다.

불교 가치는 정치적으로 변용도 가능하다. 해탈·무아·자비 등이 자유·평등·복지란 정치사회적 가치들로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 교리의 훼손, 논리 비약 없이 그 가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치참여의 불교적 방법론은 어떻게? 승·재가를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승·재가 윤리가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가 추구하는 상이한 목표에 따라 연기법의 현실 적용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승가의 정치참여는 정치적 이상을 일깨우고 교육하는 스승의 역할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재가의 정치참여는 적극적일 수 있다. 교조적인 오해의 해석과 적용보다는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논리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실현의 출발점은 생명존중의 실천이다. 생명 위협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불교인들의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윤세원(인천전문대 교수)

■ 손혁재(참여연대 운영위원장)=불자 출신 정치인이 몇 명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불교를 구현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불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 백경남(동국대 정의과 교수)=국가의 권위적인 배분에서 불교는 처음부터 소외돼 왔다. 1천만 불자들에게 대한 가치분배가 안 됐다는 말이다. 그 정치참여의 대안으로, 불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얻어내야 한다. 시대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야 하며, 현대사회의 흐름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 차차석(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종교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현실적 목적과 더불어 대중화를 위한 이론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불교의 현실참여는 중생에게 평화와 안락을 주는데 있기 때문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참여불교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박수호(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불교의 사회참여는 불교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그에만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전체 시민사회의 지평을 확장하는 한편 불교계 내부의 시민사회, 즉 불교시민사회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승무(중앙승가대 대학 포교사회학과 교수)

■사회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 전제

사회참여의 교리적 근거와 사회적 조건부터 따져야 한다. 붓다는 바라밀교의 전통과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사회혁명적 길을 택한 붓다는 그 대안을 연기법과 사성제에서 교리적 근거를 찾았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인간과 사회의 불이적 관계, 개인과 사회적 고통은 상당 부분 연관돼 있다. 때문에 한국불교의 사회참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회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기존의 정치사회적 원리나 제도적 장치로 사회적 약자가 처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은 사회현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 주체부터 짚어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불교의 사회참여 주체는 사부대중이다. 하지만 사회참여가 일종의 집합행위라는 점에서, 한국불교계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그 구성원 등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참여 영역의 다양화도 요구된다. 북한동포돕기, 환경문제에 국한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인류 공동선, 제3세계 빈곤 문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마약, 성의 상품화, 낙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의 가난과 질병, 탈북자 문제 등도 빠뜨려선 안 된다. 방법론도 개발해야 한다. 일반 사회단체와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 모델로 인도 독립운동을 주도한 간디의 비폭력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함께 한국불교의 사회적 고통 해결을 위한 재가자의 활발한 참여 유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불교·가톨릭 미술의 만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전이 30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중랑동 가톨릭 화랑(02-360-9108)에서 열린다. 종교적 주제를 작품에 담은 양쪽의 화가와 조각가 22명이 작품을 출품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평화와 화해를 갈망하는 이웃들에게 감동과 같은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불신과 대립, 갈등과 전쟁으로 물든 세상이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기원했다.

장군묵매

문화재, 자연재해 무방비

감사원이 23일 낸 '자연재해 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8478건 중 60%가 넘는 5871건이 자연재해시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화재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문화재의 경우 재해를 인고도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문화재 주변 및 인접시설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Advertisement for 'Buddhist Canon 9-volume set' and '60 stories of enlightenment'. Includes book images, text about the canon, and a cartoon character playing a guitar. Text: '이제 불교설법전서한 권이 더 보태어졌습니다! 불교설법전서 9권 발간', '만화와 상식, 두 권의 책을 한 권에 담은 마음시리즈 첫번째 이야기!',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부처님도 미소지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불교'.